

지니포럼, 온라인 행사로 전환

코로나19 재확산 따라 전면 비대면으로... 31일·내달 1일 실시간 생중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금융·4차산업·그린뉴딜 등 미래 청사진 제시

전북도와 지니포럼 조직위원회는 오는 31일과 9월 1일,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제1회 지니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니포럼은 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그동안 전북에서 개최하던 국제금융컨퍼런스를 미래산업, 그린뉴딜 등 경제 신산업 분야와 연계해 확대 추진하는 글로벌 경제포럼으로 지난달 15일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성공개회를 다짐한 바 있다.

지니포럼은 당초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 기획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8월 19일)를 거쳐 전면 비대면, 온라인 개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참가자를 위해 지니포럼 공식홈페이지(<http://geniforum.or.kr>)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생중계 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지니포럼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전 산업 분야의 트렌드를 공유한다.

또 미래 방향의 담론을 형성하는 소통의 장으로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와 4차산업, 기후변화, 한류문화 등의 7개 연계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니포럼의 메인행사인 국제금융컨퍼런스는 '글로벌 팬데믹, 대한민국 금융 가보지 않은 길을 찾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이 모여 펼친다.

우선 로날드 뷔에스터(Ronald Wuijster)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 CEO의 화상 기조연설을 시작한다.

이어 존리(Jhon Lee)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요르그 미하엘 도스탈(Jorg Michael Dostal) 서울대 교수 등이 '불확실성의 시대, 국민연금의 도전과 미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금융이 가야 할 길을 찾고 전북 금융도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막식 전날인 31일에는 국내 금융인력 양성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자 산운용 혁신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모색하는 별도의 세미나도 함께 개최된다.

또한 (재)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하는 기후환경기술은 '그린뉴딜을 위한 지

속가능한 기후금융'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연관 스타트업 10개사의 피칭을 통해 4차산업 및 금융과 연계된 기후 변화 이슈를 공유한다.

(사)한국청년스타트업협회는 '코로나 시대 스타트업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스토리지 데모데이를 개최, 국내 스타트업의 현 주소와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 스타트업 16개사의 피칭도 온라인으로 함께 펼친다.

아울러, 대한민국 상생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우수 중소기업, 청년창업기업, 해외기업과 우수 인재의 맞춤형 매칭부

터 정책 소개, 실시간 상담 등을 8월 24일을 시작으로 9월 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국제한식문화재단은 전북도 대표 농·특산물을 활용한 한식 개발과 한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K-Food 한식 요리 경연대회'를 사전 선 정된 국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지니포럼이 당초 계획과 달리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돼 아쉽지만 코로나 이후 모범적 행사 모델로 자리 잡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진단할 토론의 장에 온라인을 통해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하나님 믿으면 코로나 안걸려?”

전주 한 대형교회 담임목사 “그게 사이버” 일침

“하나님을 믿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 믿을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게 코로나다”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혹 이와 같은 말로 여러분을 현혹한다면 그 집단이 사이버, 미신입니다.”

전주 한 대형교회 담임목사는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공지문을 올렸다.

이는 최근 일부 보수 유튜브와 일부 교인들이 광복절 집회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늘리기 위해 보건당국이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한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에 반박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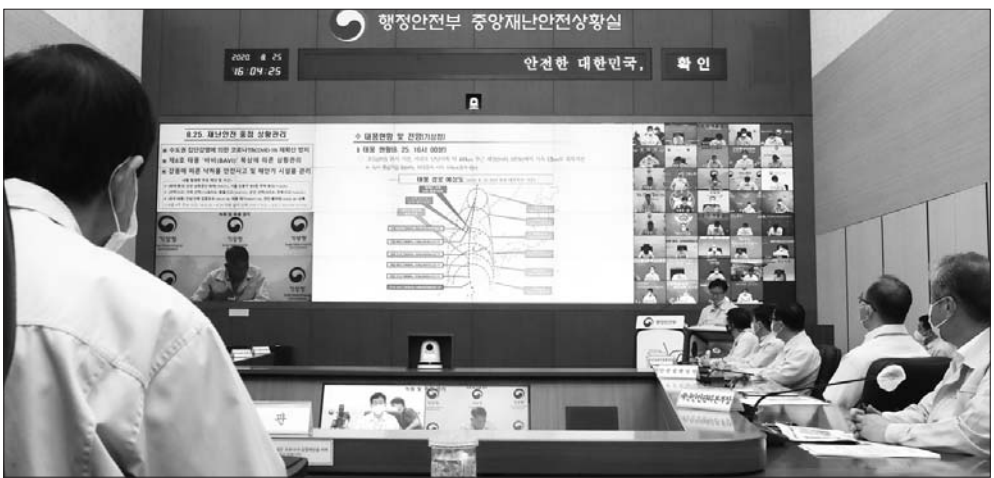
A교회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 확산되고 있다”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한다는

조롱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그에 따른 섭리를 믿는다면 기독교인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한다”며 “마스크 안 하고, 손 안 씻고, 예배도 모이고 기도회 하면 코로나에 더 잘 걸린다”고 강조했다.

이 교회 목사는 “우리 교회는 9월 5일까지 예배당 건물 및 모든 부속 시설을 폐쇄한다”면서 “해당 기간 주일 예배 및 수요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새벽기도회는 중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상식이라면, 너로 인해 이웃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또한 상식”이라며 “예배당 폐쇄와 온라인 예배 진행 등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스



대중 '바비' 복상, 긴장감 감도는 중앙재난상황실

25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복상하고 있는 태풍 제8호 태풍 '바비(BAVI)'를 대비한 긴급 회의가 열려 진행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태풍 현황과 예상 경로를 보며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

도내 수도권 집회 참석자 288명 명단 확보

도, 검사거부자 수사 의뢰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

전북도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거점이 되고 있는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파악과 검사를 위해 행정명령 발동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집회 참가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만큼 신속한 조치로 빠짐없는 검사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도는 8.15 집회 참석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이행력 확보를 위해 집회 등 참석자 중 검사 안내를 받고도 검사거부, 통화불응(불응)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북도는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 이통사 기지국을 통한 176명, 전주시의 집회 참석 버스 인솔자 압수수색을 통한 128명 등 총 304명 중 288명의 참석자 명단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들 중 현재 검사를 완료했거나 진행할 예정인 이들 외에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불응(불응)자는 모두 36명이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 발 확진자가 8.15 집회에 참석하면서

전국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대규모로 증가했고 실제 전북지역도 8.15 집회 이후 확진자가 34명으로 전체 77명의 44%에 달할 정도로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8.15 집회 등 참석자를 조기 식별함으로써 도내 접촉 최소화, 신속 격리를 위해 신속하고 엄격한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다.

도는 지난 8.8 경복궁 집회와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20일 발령했다.

또 이 집회 관계자 등이 탑승명단 제출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등 명단확보가 여의치 않자 집회 참석자 버스 관계자의 탑승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21일 취한 바 있다.

오재림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검사거부나 불응(불응)자에 대해서는 대다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전주시 등과 함께 경찰과 협조를 통해 동 대상자 GPS 의뢰와 함께 감염병 관리법 제 18조 3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경찰에 수사요청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동물병원 불법진료 행위 단속

전북도가 동물진료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일부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사전 미고지와 진료비 과다 청구 등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해 도내 동물병원 불법 진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2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시, 군과 합동으로 도내 동물병원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요구 거부행위, 진료부 등 비치 및 기록 실시여부, 수의사 진료 후 진단서, 처방전 적정 발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가을무·배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접수”

전북도는 삼락농정 대표사업인 '2020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이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 중 가을무, 가을배추의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다음달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대상은 도내 11개 시,군으로 가을무는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이며 가을배추는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이나 지역농협과 출하 계약서를 작성,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2019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4개 품목(양파, 마늘, 건고추, 노지감자)의 773농가에게 41억8천만원의 차액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 농업인만이 누릴 수 있는 농업의 안전벨트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지난 2016년 227농가가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한 이후, ▲2017년 1,119농가 ▲2018년 1,736농가 ▲2019년 1,928농가

등 해마다 참여 농가가 꾸준히 증가하며 농업 현장에서 중소농가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품목별 재배 의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2019년 태풍 피해로 출하가 가격이 높아 올해 재배의향이 작년보다 각각 9.6%, 18.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어떤 품목보다도 가격 변동 폭이 큰 품목”이라면서 “도내 가을무, 가을배추를 재배하는 모든 농업인들이 기간 내 사업을 신청, 가격 하락에 대비하 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현영**

스피치·건강해소·웃음치료(힐링)·면접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음반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E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컨설턴트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김양욱 교수)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건강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9월 중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